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2. 5.(목) 11:00 / 2. 6.(금) 조간 배포 2026. 2. 5.(목) 09:00

행동으로만 평가하던 반려견 기질, '호르몬 지표'로 확인

- '기질 평가'와 '스트레스·정서 안정 호르몬' 상관관계 과학적 증명
- 안정된 반려견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낮고, 정서 안정 호르몬 높아
- 기질평가 신뢰성 높여 현장 활용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반려견 행동 관찰로 성격을 평가하는 '기질평가' 점수가 실제 몸속의 스트레스 및 정서 안정 호르몬 수치와 동일한 수준에서 표출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

국립축산과학원과 경북대학교, 오산대학교 공동연구팀은 그동안 전문가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했던 반려견 기질평가를 과학적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공동연구팀은 독일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반려견 기질평가 도구 '베젠테스트(Wesen test)'를 적용, 총 24두 반려견의 기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질평가 전후 타액을 채취해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과 정서 안정 호르몬(세로토닌) 수치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반려견의 기질평가 점수와 타액 내 '코르티솔', '세로토닌' 수치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기질평가 점수에 따라 세 그룹(높음·중간·낮음)으로 나눠 비교한 결과, 기질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정서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는 평가 전부터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기질평가 점수가 낮은 반려견은 평가 이후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됐다.

한편, 반려견 기질은 군견·경찰견·안내견·치유 도우미견 등 목적견 선발과 훈련을 비롯해 일반 반려견의 입양, 사람과의 관계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다.

반려견 기질평가는 낯선 환경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해 반려견의 안정성·사회성·스트레스 대응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다. 지금까지는 주로 평가자의 관찰과 경험에 의존하다 보니, 평가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이휘철 과장은 "이번 연구로 그동안 행동 관찰 중심으로 행해지던 반려견 기질평가 결과가 실제 생리적 반응과도 연결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기질평가 결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꾸준히 확보해 신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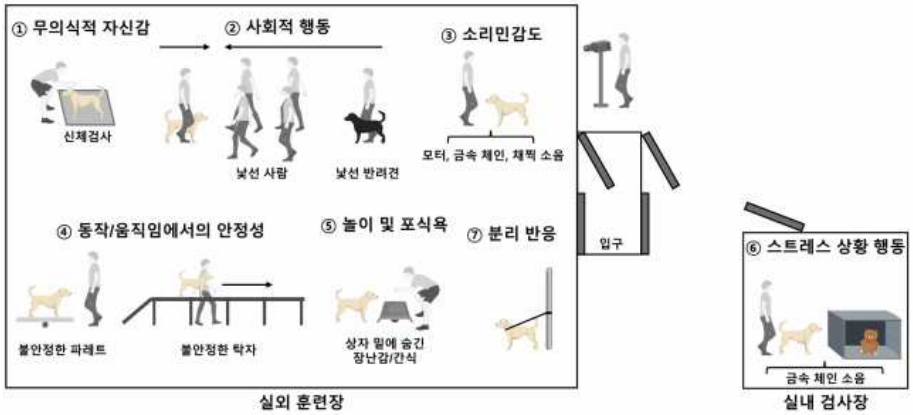
붙임. 연구설계 및 결과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책임자	과 장	이휘철 (063-283-7300)
		담당자	연구사	양가영 (063-283-7304)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 **연구설계 및 결과**

☐ 베젠테스트(Wesen test) 개요도



- 베젠테스트는 낯선 환경과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려견의 반응을 단계별로 관찰해, 반려견의 안정성·사회성·스트레스 대응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표준화된 기질 검사임
- 검사 과정에서는 소리·움직임·사람과의 상호작용·분리 상황 등 일상에서 반려견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인위적으로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경북대학교, 오산대학교에서 동일한 절차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림의 1~7번 순서에 따라 각 하위 검사(subtest)가 단계적으로 수행됨

  ① 무의식적 자신감: 신체 검사 상황에서의 긴장 수준 등의 반응 측정

  ② 사회적 행동: 사람 및 다른 반려견에 대한 친화적 반응 정도 측정

  ③ 소리민감도: 다양한 음향 자극에 대한 반응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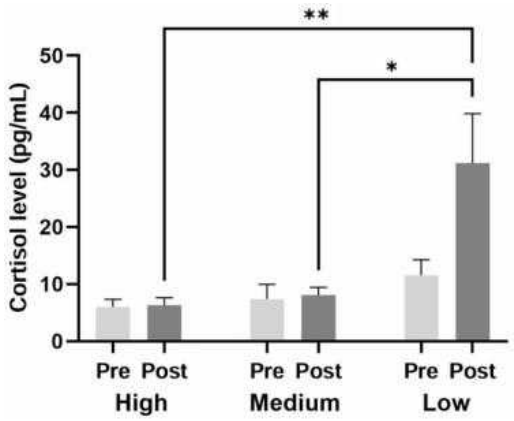
  ④ 동작/움직임에서의 안전성: 놀이 준비 상태와 고도 감각을 평가

  ⑤ 놀이 및 포식욕: 핸들러 및 보조자와의 활동에서 집중도, 인내심 등 평가

  ⑥ 스트레스 상황 행동(실내):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응과 놀이 및 찾기 의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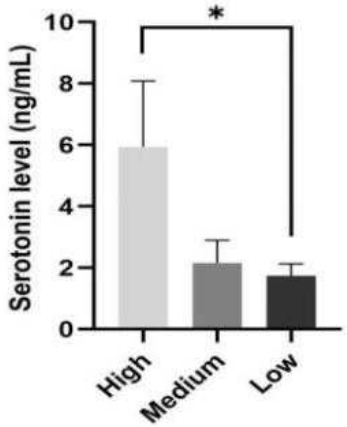
  ⑦ 분리 반응: 보호자와 분리됐을 때의 불안 및 안정성 반응 측정

○ 반려견 기질점수를 토대로 나눈 3개 그룹의 코르티솔 수치 비교



- 반려견 기질점수를 토대로 우수(High), 보통(Medium), 미흡(Low) 그룹으로 분류함
- 기질평가 전(pre) 측정된 코르티솔 수치는 기질점수가 우수한 반려견 그룹(High)에서 기질점수가 낮은 그룹(Low)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p= 0.058)
- 이는 기저 코르티솔 수치가 실제 기질수준을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함.
- 기질평가 후(post) 측정된 코르티솔 수치는 기질점수가 낮은 그룹(Low)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음.(High와 비교 시 p= 0.005, Medium과 비교 시 p= 0.012)
- 이는 기질수준이 미흡한 반려견에서 기질평가로 인한 큰 스트레스 반응이 야기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반려견 기질점수를 토대로 나눈 3개 그룹의 세로토닌 수치 비교



- 반려견 기질점수를 토대로 우수(High), 보통(Medium), 미흡(Low) 그룹으로 분류함.
- 기질평가 전(pre) 측정된 세로토닌 수치는 기질점수가 우수한 반려견 그룹에서 기질점수가 낮은 그룹에 비해 높았음. (p= 0.028)
- 이는 기저 세로토닌 수치가 실제 기질수준을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함.
-